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4호,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날 짜 / 2021년 12월 7일(수)

발 신 /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설재균 간사, 042-331-0095/010-3583-8786)

제 목 /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 결과 발표 및 우수 위원 선정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의 대전광역시 및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학부모연대가 연대한 기구입니다.
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여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4.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평가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을 매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협조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의 전문성과 단기간 평가를 이유로 의회에서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매년 진행했던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위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6.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별 선정된 우수위원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 내용 : 2021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우수 위원 선정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간사(042-331-0092/010-3583-8786)
- 기타 : 모니터링 결과 및 우수 위원 선정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 개요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스스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21년 9월부터 20여명의 활동가 및 시민이 모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2021년 업무보고 및 대전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대전시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습한 내용과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지난 11월 7일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그리고 대전학부모연대는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단이 평가한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 모니터링 진행

-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연인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을 통해

모니터링하였다. 아울러 각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으로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하였다.

-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각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한
현안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 **모니터링 평가 기준**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네 가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

- 첫째,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했다.

-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가?
-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가?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가?

- 둘째, 의원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했다.

- 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가?
- 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가?
- 해당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가? 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 셋째,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평가했다.

- 시민 의견 수렴과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가?
-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가? 대전시 전체의 사안인가? 국가
전체의 사안인가?
- 대전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가?

- 넷째, 출석, 이석, 질의횟수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를 평가했다.

- 상임위원회 별 모니터링 평가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

- 전문성

- 주민자치회 위원 및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 강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 지역업체 관급공사 수주율 확대, 수의계약에 신규업체 참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아쉬움이 많았다. 한쪽에서 보조금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정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거나, 수의계약을 확대가 무조건 긍정적이고 본인이 소개한 업체가 배제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전시에서 진행한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했다. 자료조사가 부족하였고, 질의에 요점이 없었다.

- 구체성

- 대전시의 현안, 이슈에 대해 알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 사업의 진행 과정을 묻고 당부를 하는 것은 문제를 묻고 가는 형태밖에 안된다. 향후 사업의 진행 방향을 질의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발생한 문제,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제시 또는 논의를 해야 함에도 당부로 그친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원자력 폐기물 관리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2020년 질의에서 크게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책은 연속성이 있기에 매년 점검은 해야 하고, 적어도

작년과 올해의 비교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 견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대표성

- 여전히 2018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자신의 지역구 문제를 부각하고 해결을 요청하거나, 지역구 중심의 대안제시가 많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대전광역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광역의제를 지역의제로 한정 시키는 질의가 많았다.

■ 태도

- 자신의 질문만 마치고 이석하는 의원이 있었다. 질의의 배분은 위원들 간 적절히 배분 되었다.

○ 복지환경위원회

■ 전문성

-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의 구분, 사무편람 등 행정의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하고, 조례를 근거로 한 조사를 통한 질의는 적절했다. 다만, 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책, 사업의 핵심을 찌르는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피상적인 질문들이 많았다. 문제를 제시하면서 당부 형태의 질의와 기존 문제점만 반복하는 질의는 피감기관을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없다.

■ 구체성

- 의원별로 다양한 질의를 하려는 노력은 보였다. 그러나 질의의 다수는 원론적이었고, 요점이 불분명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황에 대한 문의와 자료요청이 계속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 준비가 부족해 질의에 전문성은 물론 구체성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다.

■ 대표성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한 질의한 의원들이 보였다. 의원이 아닌 개인 관점에서의 질의와 지역구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민원을 전달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해당 민원을 접수 했으면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 또는 논의를 해야 하는 자리지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태도

- 장시간 이석한 의원이 있었다. 위원간 질의 배분 시간은 적절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성

- 산업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한 교통공사 설립과 향후 대중교통의 연계 질의, 스마트팜과 먹거리 문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대비한 대전시 차원의 사전준비에 대한 질의는 유의미 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정책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과 연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 지난해보다 질의의 구체성은 보강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업 내용 질의, 의원 간 반복 질의가 많았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감기관의 전반적인 감사보다는 특정 사업에 대한 반복질의, 사업 방향에 대한 질의 등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맞지 않다. 하지만 사진, 현장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감사는 의미있었다.

■ 대표성

-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두고 질의하는 의원이 있었다, 의원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전광역시 전체 입장에서 질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다.

■ 태도

- 청가 1명을 제외하면 이석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없었다.

○ 교육위원회

■ 전문성

- 위원들 간 질의 수준 격차가 크다. 일부 의원의 경우 사업 내용 질의, 당부 수준에 그치는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사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자료와 통계 등 자료 준비를 통한 질의는 질의의 수준을 올려줬다. 하지만 피감기관의 두루뭉술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날카롭게 질의하고, 핵심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절실하다.

■ 구체성

- 각 기관에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질의는 유의미 했다. 하지만 대부분 질의 내용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전반적으로는 제공되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 대표성

- 학교 현장, 학부모 등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문제를 개선 시키려고 했다.

■ 태도

- 이석한 의원이 있었다. 감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짧아, 교육청의 방대한 자료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감사시간이었다. 유의미한 질의는 있으나,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적절한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종합 평가

-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지만, 한계를 보여준 행정사무감사였다. 여전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한 의원들이 보였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을 확인하고, 당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평가 했다. 그러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 요청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찾고 질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된 개발 위주의 질의와 특정한 곳의 이익을 주장하는 질의 등은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시민 안전, 성인지 정책 등 향후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문제들, **2021년** 대전광역시가 미비했던 점들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필요성, 사업의 진행 과정 등만 나열 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대책에 대해 다양한 자료에 기반해 질의하고 부서별 떠넘기기 실태를 질타 하는 질의는 유의미 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형 그린뉴딜, 탄소 중립 관련 질의는 현안과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의미 있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대응하는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대책 등에 대한 질의는 현재 필요한 질의였으며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부지, 학생 수 인원 예산의 오류 등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미숙함을 질타 하는 질의도 유의미 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도 같이 수반되어야 함은 앞으로의 과제다.
- 대전광역시의회의회는 **2021년** 시민들의 감시와 평가를 피하려는 태도를 취해 왔다.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 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내년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 **8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평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우수 위원 선정 결과

- 모니터링에 참여한 인원이 매일 기록한 위원별 점수와 전체 모니터링단이 모인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위원을 선정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우승호 위원

- 구체적인 근거로 자료를 제시하고 활용하여 의미 있는 질의를 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지역안전지수,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의 민원 사항을 파악하여
제시하며 질의했다.

■ 복지환경위원회

● 박혜련 위원

- 민간위탁/사무편람 등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례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질의했다. 이와 같이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은 유의미하였다.

■ 산업건설위원회

● 이광복 위원

-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빈집 활용 문제 등 조례 파악,
자료 준비도 충실 했으며, 문제에 대한 핵심을 알고
질의를 진행했다.

■ 교육위원회

● 조성철 위원

- 피감기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질의했다. 학교 현장, 학생
지원 사업 등 학생 위주의 질의와 미비한 점을 확인 한
것은 유의미 했다.